

### ■ 산업안전보건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한층 강화된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건축물·설비의 노후 석면 자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개정안이 '10.5.25 입법 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보온재 등의 석면함유자재가 손상·노후화되어 근로자에게 석면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노후 석면 자재의 관리 필요성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석면분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토록 하고 당해 장소에서는 흡연·취식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러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은 유해·위험 작업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노·사가 내용을 쉽게 찾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은 6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8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를 막아라”

- 여름철(6~8월), 맨홀·정화조·오폐수 처리장에서 다발
- 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월부터 지도감독 실시

산업 현장의 기계기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3월 11일(목),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5개 산업기계 제조사 직능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한편,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설비나 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자는 2009년 20,609명으로, 이는 전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 4명중 1명이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도 기기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은 1.29%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인 0.70%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와 같이 매년 평균 18,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기계기구로 인한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국내 산업기계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공작기계 협회 등 5개 기계류 제조사 직능단체와 협약을 맺고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은 각 협회 1,2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세미나, 기술자료 제공,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해 기계기구의 안전한 설계와 제작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각 협회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공단과 함께 산업기계 재해예방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한편, 이와 더불어 공단은 산업기계에 대한 안전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자문위원회는 업무 협약을 맺은 5개 단체를 포함한 산업기계 관련 학계, 제조사 단체, 유관기관, 국외 인증기관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안전기준 제정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을 담당한다.

##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5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 초경 시행될 예정이다. ☺